

# 경제현안 분석

I. 재정기조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  
〈연구위원 김성태〉

II.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
〈연구위원 김태봉〉  
〈연구위원 이한규〉

III.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  
〈연구위원 황수경〉  
〈연구위원 신석하〉  
〈연구위원 김인경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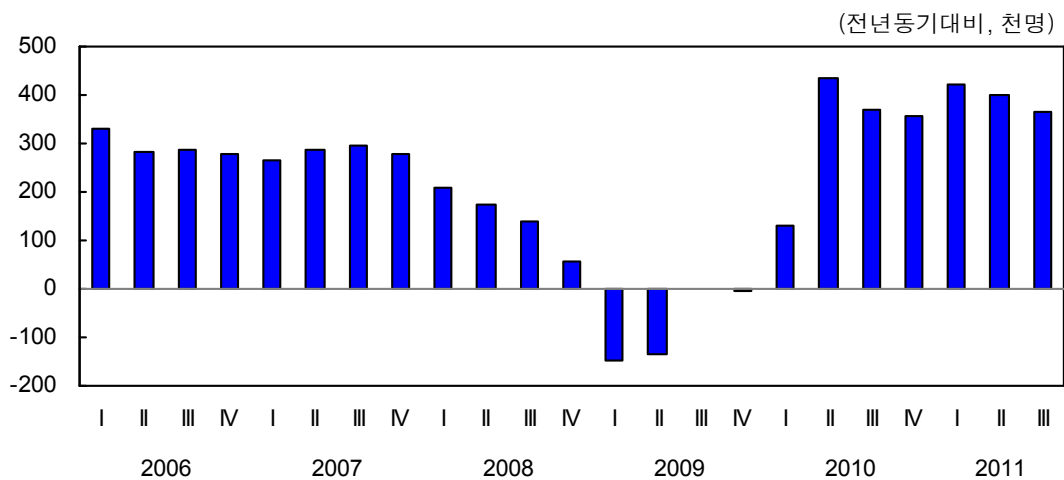
#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

연구위원 황수경  
 연구위원 신석하  
 부연구위원 김인경

## 1. 문제의 제기

- 2010년 2/4분기 이후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0년의 경우 금융위기 동안의 고용 위축(2009년 7.2만명 감소)에 대한 반등효과로 인식되었으나, 2011년에도 40만명 내외의 높은 고용증가세가 유지됨.
- 이러한 증가세는 금융위기 이전(2007년 1/4분기~2008년 2/4분기에 평균 25만명 증가)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.

취업자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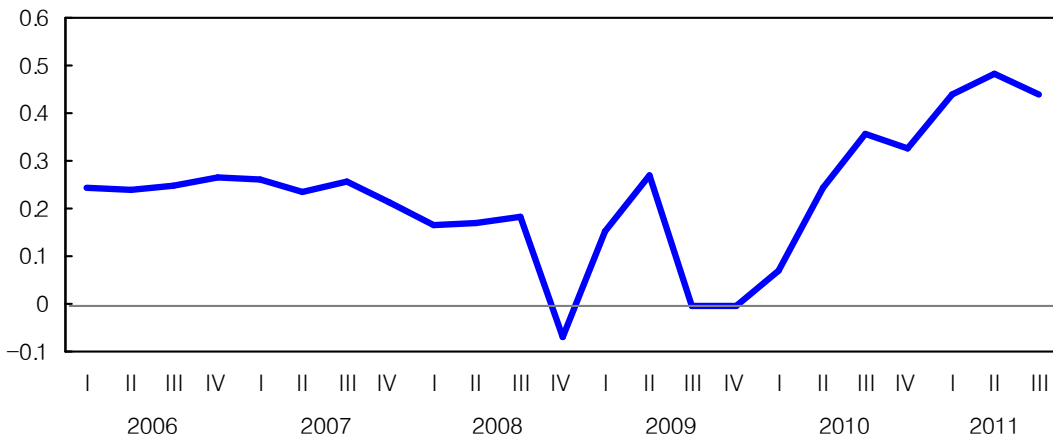


- 본고는 최근 고용 증가의 특징을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고용 증가를 유발한 요인을 식별하고, 우리 경제 및 고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- 경제 전체의 성장률, 경제활동참가, 임금 등 고용 관련 요인을 검토
- 아울러 성·연령별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의 차이를 살펴봄.

## 2. 최근 고용 증가의 특징

- 최근 고용증가세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, 이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
- 고용탄성치(=취업자 증가율/실질 GDP 증가율)가 2010년 2/4분기~2011년 2/4분기 동안 0.48로서 과거(2006~07년 0.25 내외)에 비해 높은 수준
  - 고용이 경기에 다소 후행하는 것을 감안하여도, 최근 고용증가세는 생산증가세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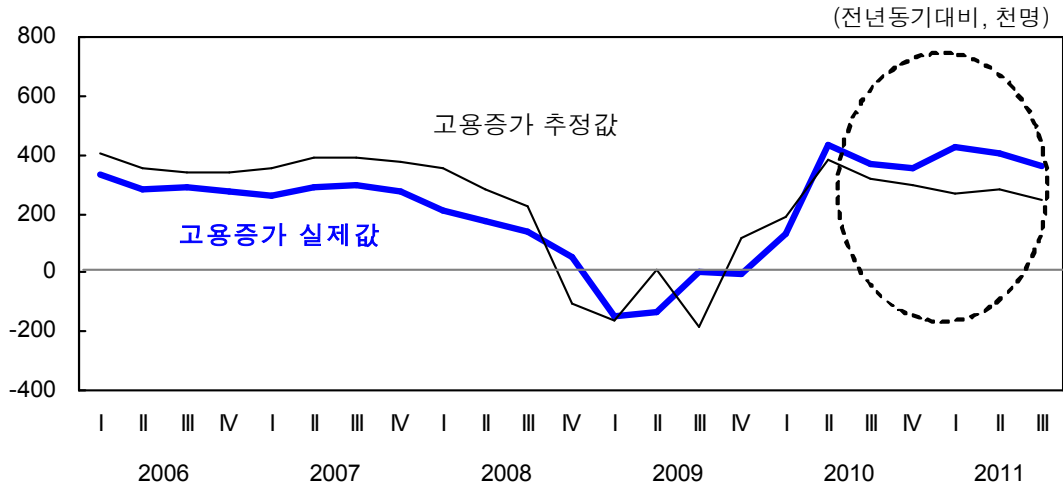
고용탄성치



- 수요요인을 고려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도 최근의 고용증가세를 수요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움을 나타냄.
  - 취업자 증가를 경제성장률, 소비비중 등 수요요인만으로 추정하는 경우, 추정치가 실제 고용증가분을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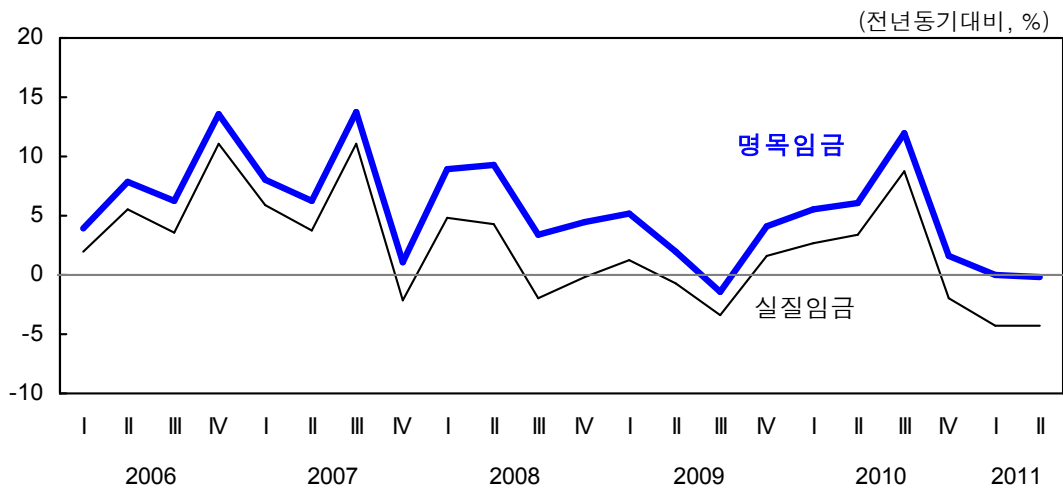
- 2010년 2/4분기~4/4분기에는 추정치가 실제 고용증가분을 5만명 내외 하회하며, 2011년 이후에는 실제 고용증가분과의 차이가 평균 13만명으로 확대

**고용증가 실제치 및 추정치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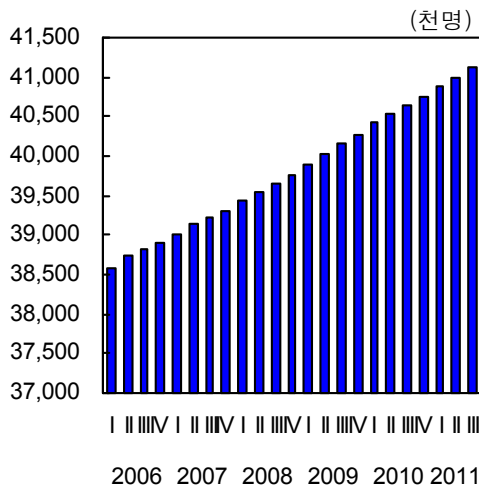
- 또한 최근의 낮은 임금상승률도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
  - 명목임금상승률은 2010년 3/4분기(12.0%) 이후 하락하여 2011년 2/4분기에는 -0.2%를 기록

**임금상승률(상용근로자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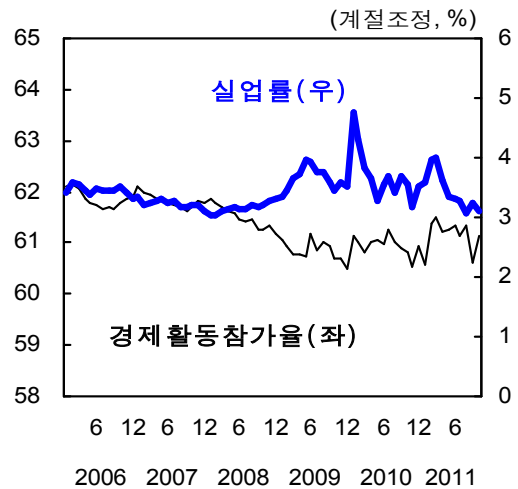


- 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도 분해 결과도 최근 취업자 증가세 확대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
-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규모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,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모습

생산가능인구 증감



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



- 최근 취업자 증가규모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14만명 정도 확대(25만명 → 39만명)되었는데, 이 중에서 생산가능인구, 경제활동참가율, 실업률의 변화가 기여한 정도는 각각 3.6만명, 9.2만명, 1.2만명으로 추산됨.

고용증가 분해 결과

(전년동기대비, 천명)

기 간	취업자 증감	생산가능인구 기여분	경제활동참가율 기여분	실업률 변화 기여분
2007.1/4~2008 2/4 (A)	251.6	245.4	-42.4	48.6
2008.3/4~2010 1/4 (B)	5.9	282.8	-178.5	-98.3
2010.2/4~2011 3/4 (C)	391.4	281.8	49.2	60.3
(C) - (A)	139.8	36.4	91.6	11.7

자료: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산.

### 3. 연령 및 성별 고용의 특징

- 15~29세 연령층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
  - 최근 15~29세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0만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
  -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세가 둔화되며(-1.07%p → -0.29%p),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(-8만명 → -5만명)

#### 연령별 고용 관련 지표

(전년동기대비, 천명, %p)

분 류	기 간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
취업자	2007.1/4 ~ 2008.2/4 (A)	-77.4	171.3	157.8
	2008.3/4 ~ 2010.1/4 (B)	-114.3	13.0	107.3
	2010.2/4 ~ 2011.3/4 (C)	-47.1	171.5	266.9
	(C)-(A)	<b>30.3</b>	<b>0.2</b>	<b>109.1</b>
생산가능인구	2007.1/4 ~ 2008.2/4 (A)	-0.6	164.0	247.7
	2008.3/4 ~ 2010.1/4 (B)	-44.6	172.3	354.5
	2010.2/4 ~ 2011.3/4 (C)	-96.6	83.2	490.1
	(C)-(A)	-96.0	-80.8	242.4
경제활동참가율 증감	2007.1/4 ~ 2008.2/4 (A)	-1.07	0.17	0.46
	2008.3/4 ~ 2010.1/4 (B)	-0.76	-0.34	-0.22
	2010.2/4 ~ 2011.3/4 (C)	-0.29	0.41	0.38
	(C)-(A)	<b>0.78</b>	<b>0.24</b>	<b>-0.08</b>
실업률 증감	2007.1/4 ~ 2008.2/4 (A)	-0.44	-0.10	-0.14
	2008.3/4 ~ 2010.1/4 (B)	0.62	0.32	0.65
	2010.2/4 ~ 2011.3/4 (C)	-0.43	-0.18	-0.16
	(C)-(A)	0.01	-0.08	-0.02

자료: 통계청.

- 반면, 최근 5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고령화에 따라 이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며,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.
- 55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(16만명 → 27만명), 이는 고령화에 따라 55세 이상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확대된 데 기인(25만명 → 49만명)
- 반면,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년동기대비 0.46%p씩 높아졌으나, 최근에는 0.38%p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
- 한편,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
- 각 연령층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감폭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각각 0.84%p, 0.33%p, -0.03%p를 기록하여 남성의 증감폭(0.71%p, 0.18%p, -0.24%p)을 상회

**성 ·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**

(전년동기대비, %p)

기 간	전 체	남			여		
	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
2007.1/4 ~ 2008.2/4 (A)	-0.11	-1.20	-0.06	0.68	-0.94	0.39	0.28
2008.3/4 ~ 2010.1/4 (B)	-0.47	-0.85	-0.30	-0.16	-0.66	-0.43	-0.30
2010.2/4 ~ 2011.3/4 (C)	0.13	-0.49	0.12	0.44	-0.10	0.72	0.24
(C) - (A)	0.24	0.71	0.18	-0.24	0.84	0.33	-0.03

자료: 통계청.

- 인구집단의 비중을 감안하여도,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된 데에는 15~29세 연령층 및 여성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남.
- 성 · 연령 인구집단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상승분(0.24%p)에 대한 기여도를 추산한 결과, 여성 15~29세(0.11%p), 남성 15~29세(0.09%p), 여성 30~54세(0.08%p)의 기여가 높게 나타남.

- 경제활동참가율 차이(0.24%p)는 인구구성 변화의 기여분(-0.07%p)과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기여분(0.29%p)으로 분해됨.
- 고령화는 핵심근로계층(30~54세)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(55세 이상)의 비중을 높임으로써,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

■ 15~29세 연령층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된 것은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추측됨.

-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구주 외 취업자 증가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
  -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가구주 취업자에서 발생하였으나,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구주 외 취업자 증가폭이 가구주 취업자 증가폭을 크게 상회
- 특히, 남성 15~29세 및 여성 30~54세 계층에서 가구주 외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

### 가구주 및 가구주 외 취업자 증감

(전년동기대비, 천명)

구분	기간	전체	남			여		
		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
가구주	2007.1/4 ~ 2008.2/4 (A)	220.3	10.0	47.7	105.6	-28.5	53.9	31.6
	2008.3/4 ~ 2010.1/4 (B)	-192.1	-68.8	-24.2	67.5	-39.3	-98.0	-29.3
	2010.2/4 ~ 2011.3/4 (C)	144.0	-52.7	3.2	171.3	-29.6	14.3	37.5
	(C)-(A)	-76.2	<b>-62.7</b>	-44.6	65.7	-1.0	<b>-39.5</b>	5.9
가구주 외	2007.1/4 ~ 2008.2/4 (A)	31.5	-49.9	43.2	-6.7	-9.1	26.5	27.3
	2008.3/4 ~ 2010.1/4 (B)	198.0	18.3	53.5	7.4	-24.6	81.7	61.7
	2010.2/4 ~ 2011.3/4 (C)	247.4	27.0	74.9	-6.7	8.2	79.1	64.9
	(C)-(A)	215.9	<b>76.9</b>	31.7	-0.1	17.2	<b>52.6</b>	37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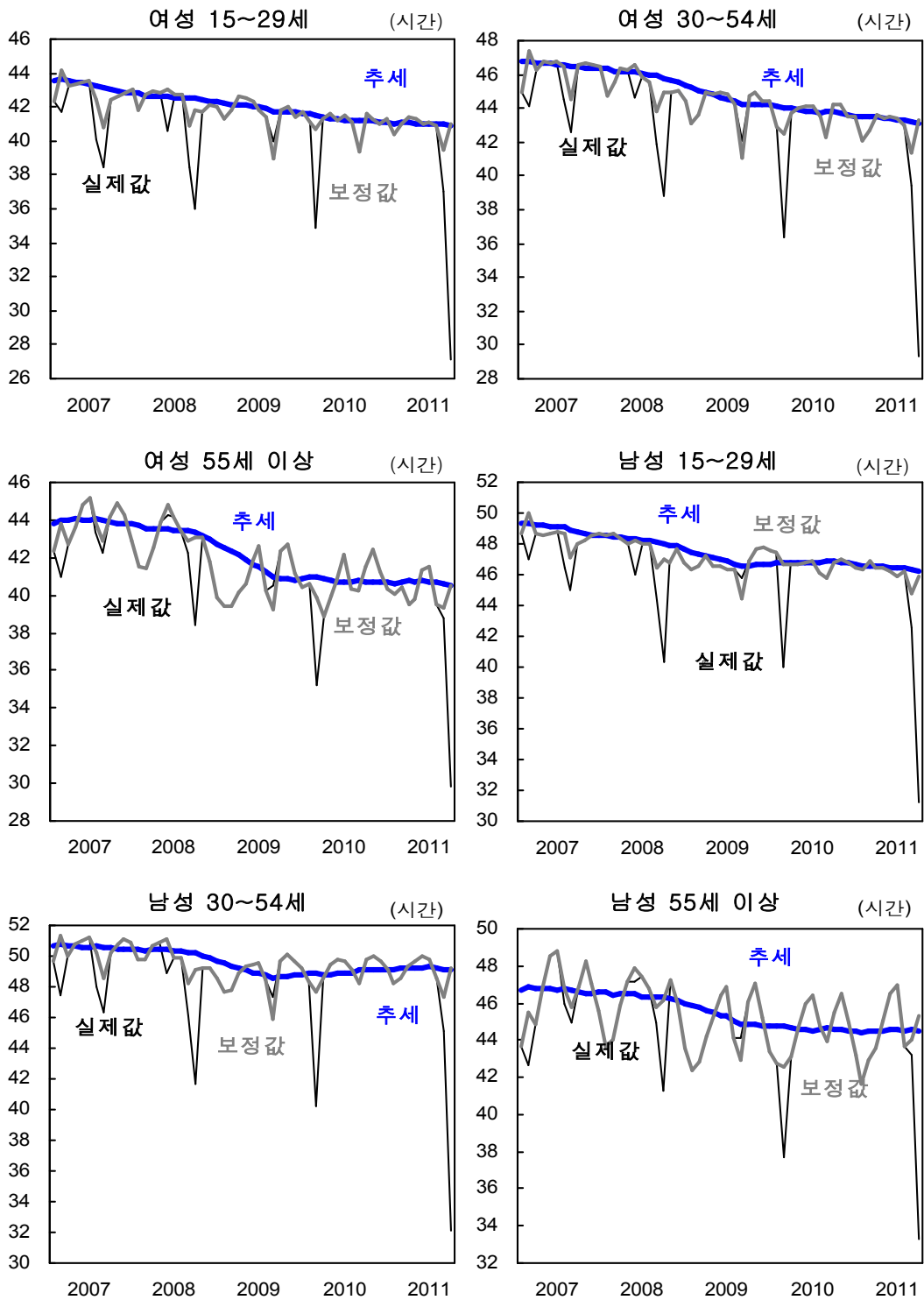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.

■ 최근 증가한 여성 취업자의 상당 부분이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

- 근로시간에서 휴일 및 명절효과 등을 보정한 후 추세를 살펴보면, 남성의 근로시간은 유지되는 반면 여성의 근로시간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, 여성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
  - 특히, 여성 30~54세 및 15~29세 계층의 근로시간이 다른 계층에 비해 빠르게 단축



성별 · 연령별 근로시간



- 한편, 추가 근로를 원하는 여성 취업자가 최근 감소하고 있어, 최근 증가한 여성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수가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됨.
  - 여성 취업자 중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거나,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는 감소

### 추가 취업 및 전직 희망자

(전년동기대비, 천명)

기간	전체	남			여		
		15-29세	30-54세	55세 이상	15-29세	30-54세	55세 이상
현재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							
2007 1/4 ~ 2008 2/4 (A)	-5.8	-2.1	-9.0	3.3	0.9	-0.4	1.4
2008 3/4 ~ 2010 1/4 (B)	73.2	2.4	19.2	14.3	5.1	20.4	11.7
2010 2/4 ~ 2011 3/4 (C)	-73.9	-2.2	-29.1	-7.6	-5.0	-16.9	-13.1
(C)-(A)	-68.2	-0.2	-20.1	-11.0	-5.9	<b>-16.5</b>	-14.5
현재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							
2007 1/4 ~ 2008 2/4 (A)	12.7	1.3	2.6	2.8	2.1	1.6	2.3
2008 3/4 ~ 2010 1/4 (B)	2.3	1.4	-1.0	-0.8	-1.4	2.4	1.6
2010 2/4 ~ 2011 3/4 (C)	-0.1	-1.6	-1.0	1.9	2.9	-1.4	-0.9
(C)-(A)	-12.8	-2.9	-3.6	-0.9	0.8	-3.0	-3.2
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							
2007 1/4 ~ 2008 2/4 (A)	1.7	0.1	-4.2	1.0	1.2	1.9	1.7
2008 3/4 ~ 2010 1/4 (B)	15.6	1.1	7.9	-0.3	3.0	3.3	0.7
2010 2/4 ~ 2011 3/4 (C)	-29.6	-2.6	-12.8	-0.1	-4.1	-9.8	-0.3
(C)-(A)	-31.4	-2.7	-8.6	-1.1	-5.3	<b>-11.7</b>	-2.0
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							
2007 1/4 ~ 2008 2/4 (A)	178.4	18.6	47.9	15.0	36.2	55.1	5.6
2008 3/4 ~ 2010 1/4 (B)	203.5	4.5	37.0	48.5	-5.9	62.2	57.3
2010 2/4 ~ 2011 3/4 (C)	762.2	65.5	236.2	84.3	67.1	217.6	91.5
(C)-(A)	583.8	46.9	188.3	69.3	30.9	<b>162.6</b>	85.8

자료: 통계청.

- 종사상 지위별로는 여성 30~54세 계층에서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
  - 거의 모든 성·연령 계층에서 상용근로자가 증가하였으나,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여성 30~54세 계층에서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
  - 한편, 남성 55세 이상의 경우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증가세도 크게 확대

###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

(전년동기대비, 천명)

구 분	기 간	전 체	남			여		
		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
임금 근로자	상용근로자							
	2007.1/4 ~ 2008.2/4 (A)	424.2	46.2	154.3	34.3	13.5	160.3	15.6
	2008.3/4 ~ 2010.1/4 (B)	406.7	-22.9	250.6	49.8	-31.0	133.9	26.4
	2010.2/4 ~ 2011.3/4 (C)	655.7	1.5	195.0	96.1	37.6	272.4	53.2
	(C)-(A)	231.5	-44.7	<b>40.7</b>	<b>61.8</b>	<b>24.0</b>	<b>112.1</b>	<b>37.6</b>
	임시근로자							
	2007.1/4 ~ 2008.2/4 (A)	-12.7	-68.3	15.2	28.6	-57.1	18.9	50.0
	2008.3/4 ~ 2010.1/4 (B)	-18.0	-10.9	-57.0	16.9	-4.4	-14.1	51.6
	2010.2/4 ~ 2011.3/4 (C)	-66.6	-13.8	16.9	-13.7	-36.1	-45.8	25.9
	(C)-(A)	-53.8	<b>54.5</b>	1.7	-42.2	21.0	-64.7	-24.1
	일용근로자							
	2007.1/4 ~ 2008.2/4 (A)	-31.7	-5.0	-10.1	15.9	8.8	-31.4	-10.0
	2008.3/4 ~ 2010.1/4 (B)	-145.1	-20.5	-45.8	-16.9	-13.1	-42.6	-6.3
2010.2/4 ~ 2011.3/4 (C)	-84.5	-11.6	-51.4	31.6	-8.1	-50.6	5.6	
(C)-(A)	-52.7	-6.6	-41.3	15.7	-16.9	-19.2	15.6	
비임금 근로자	자영업자							
	2007.1/4 ~ 2008.2/4 (A)	-81.1	-9.5	-76.0	19.7	8.4	-27.9	4.3
	2008.3/4 ~ 2010.1/4 (B)	-187.8	1.0	-119.3	22.0	-10.9	-47.3	-33.3
	2010.2/4 ~ 2011.3/4 (C)	-81.3	-1.0	-80.9	52.9	-15.2	-50.2	13.1
	(C)-(A)	-0.2	8.5	-4.9	<b>33.2</b>	-23.6	-22.3	8.7
	무급가족종사자							
	2007.1/4 ~ 2008.2/4 (A)	-47.0	-3.3	7.6	0.5	-11.2	-39.5	-1.1
	2008.3/4 ~ 2010.1/4 (B)	-49.9	2.8	0.9	3.1	-4.4	-46.1	-6.2
2010.2/4 ~ 2011.3/4 (C)	-32.0	-0.8	-1.6	-2.4	0.5	-32.3	4.6	
(C)-(A)	15.0	2.4	-9.1	-2.9	11.6	7.2	5.7	

자료: 통계청.

- 한편, 산업별로는 15~29세 및 30~54세 연령층이 주로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데 비해, 55세 이상 연령층은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됨.
- 금융위기 이전에 감소세를 지속하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0년에 상당 폭 증가하였으며,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1년 이후 과거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
- 15~29세 및 30~54세 연령층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 되거나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, 여성 55세 연령층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남성 55세 연령층은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됨.

### 산업별 취업자 증감

(전년동기대비, 천명)

구분	기간	전체	남			여		
		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	15~29세	30~54세	55세 이상
제조업	2007.1/4 ~ 2008.2/4 (A)	-36.8	-26.7	-4.5	8.0	-30.6	8.3	8.5
	2008.3/4 ~ 2010.1/4 (B)	-85.6	-28.1	11.2	16.2	-19.4	-59.5	-5.9
	2010.2/4 ~ 2011.3/4 (C)	171.9	11.4	61.7	19.4	7.8	48.2	23.4
	(C)-(A)	208.7	<b>38.1</b>	<b>66.2</b>	11.4	<b>38.4</b>	<b>39.9</b>	14.9
건설업	2007.1/4 ~ 2008.2/4 (A)	-0.8	-20.2	-13.6	25.1	0.7	7.6	-0.4
	2008.3/4 ~ 2010.1/4 (B)	-72.5	-3.3	-52.0	-9.6	-8.6	2.7	-1.7
	2010.2/4 ~ 2011.3/4 (C)	18.8	-18.7	-10.6	53.6	-0.2	-6.7	1.4
	(C)-(A)	19.6	1.5	3.0	<b>28.5</b>	-0.9	-14.3	1.8
서비스업	2007.1/4 ~ 2008.2/4 (A)	334.1	9.5	104.7	82.2	-5.0	76.7	65.7
	2008.3/4 ~ 2010.1/4 (B)	207.5	-21.4	60.7	73.8	-36.2	61.7	68.1
	2010.2/4 ~ 2011.3/4 (C)	252.5	-12.5	45.0	100.9	-27.9	61.9	85.1
	(C)-(A)	-81.6	-22.1	-59.7	18.7	-22.9	-14.8	<b>19.4</b>

자료: 통계청.

## 4. 결론 및 시사점

- 최근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는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개선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  - 최근 고용증가세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10만명 이상 높은 수준이며, 이는 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데 기인
  - 경제활동참가율의 개선은 주로 15~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
    - － 반면, 최근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, 생산가능인구는 고령화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는 최근 소폭 둔화
  -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에 비해 빠르게 개선
-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, 여성의 경우 자발적 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.
  -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졸 채용확대 장려, 일자리 나누기 등 정책효과가 결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됨.
    - － 최근 대학진학률이 하락하는 현상(2008년 83.8% → 2010년 79.0%)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
  - 여성의 경우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, 특히 여성 30~54세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됨.
- 향후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개선 추세가 지속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
  - 향후 고령화에 따른 근로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,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.

- 한편, 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인식할 필요
  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단시간 근로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방식을 개선함과 아울러,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추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고려할 필요
-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졸 채용확대 장려, 일자리 나누기, 여성의 출산 및 보육 부담 경감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